

## 5월을 기억하고 성찰하며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1년 중 가장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5월입니다. 봄의 절정인 5월은 바로 열정의 6월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5월의 첫날은 노동자의 날입니다.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1일 8시간 노동과 합당한 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통해 피를 흘리며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한 이 운동은 사실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하여 미국에서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1889년 프랑스 파리 세계노동자대회에서 이 날을 노동절로 정하고 1890년부터 제 1회 기념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노동절 행사는 일제 강점 하에서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5월 1일은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의 날로 기억되었지만, 해방 후 미군정의 통제와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 때 어용노조인 대한노총의 설립일인 1948년 3월 10일을 기념하여 1957년부터 이 날을 근로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 후 1987년 6월항쟁 이후 노동자들이 뜻을 모아 1989

년 5월 1일부터 과감하게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다시 기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1994년에 법 개정을 통해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공식 이름은 아직도 근로자의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노동자의 날 또는 노동절이라 부르는 날을 기대합니다. 가톨릭도 이 정신을 수용하여 5월 1일을 노동자의 주보 성 요셉과 연계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념일 하나에도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와 투쟁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날, 노동자들은 쉬고 공무원들은 일을 합니다. 노동자라는 신분으로 하루 쉬는 모든 이들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희생된 어린소녀를 포함한 6명의 희생자들과 그해 5월 4일 ‘헤이마켓광장’에서 숨진 술한 노동자들을 비롯한 122년의 피눈물 나는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온 몸을 불사르고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삶을 진지하게 되새기며 이날을 노동계 정화를 위한 성찰과 기도의 날로 설정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외치지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가는 물론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 각자 월급의 일부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는 실천 운동의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성찰의 날입니다. 특히 노조간부들이 참으로 순수한 노동자의 초심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합니다. 아동작가 소파(小波) 방정환 선생이 지난 1921년 5월 1일에 기념했던 이날은 어린이들을 위한 축복의 날입니다. 선물도 좋고 하루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부모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노동절의 유래와 함께 이 5월에 담긴 뜻있는 날들의 의미를 익히는 대화의 자리, 역사교육의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한 노동관, 공동체관, 인간관, 사회관, 역사관 무엇보다도 이웃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늘 간직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모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리고 노래하며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 찡한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연계하며 통일을 꿈꿉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은 제 2의 부모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나의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 가르침을 준 모든 스승, 선배, 은인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정을 드립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감히 밟지도 말라는 옛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참된 스승의 모습을 기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5월에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망월동 구 묘역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묵상합니다. 또한 5월 21일 부부의 날도 기억하고 부부신과의 사랑을 다짐하며 영령들께 청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인 이 5월에 영령들이시여, 노동자, 어린이, 어버이, 교사, 부부, 우리 모두 함께 광주의 희생정신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우리의 뼈를 깎아 주십시오.”

침묵 속에 진지하게 다짐합니다.